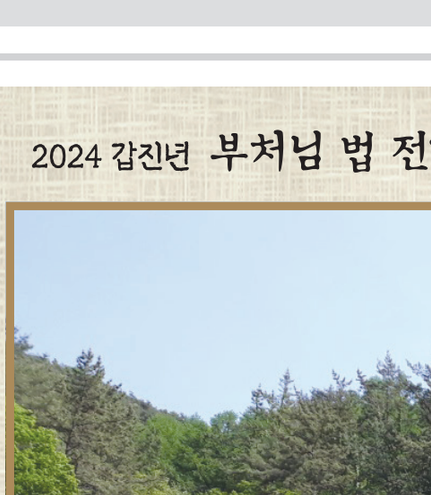
RE:START
대학생 전법
2. 대학생 전법 어떻게 해야 하나

벼랑 끝이라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생 불교학생회를 이끄는 지도법사, 지도교수, 불교학생회장이다. 위기 앞에서도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이뤄낸 이들에게 학생회 운영 노하우와 대학생 전법·포교 방안, 향후 과제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2022년 8월 22일 경남 진주 미륵암에서 열린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창립법회.


2023년 6월 고성 옥천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대전대 불교학생회.


2023년 1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마곡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공주대 불교학생회.

"불교학생회, 신설보단 유지·관리에 집중을"



담산 스님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재미있는 활동에 불교 스며들길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체 '포교'
15명 회원 1년 만에 50명 확대

"대학생 전법 불사가 불교학생회 신설에만 집중돼선 안 됩니다. 신설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각 지역 거점에서 운영 중인 불교학생회가 더 잘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진주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담산 스님이 대학생 전법 불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각 지역 거점 불교학생회의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질 높은 대학생 전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구 절벽시대로, 각 대학 신입생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 소규모 사립대학이 통합 또는 폐교의 위기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진주 지역에 있으면서 경상국립대를 중심으로 합병되는 대학들을 지켜본 담산 스님이 고민 끝에 내놓은 현실적 돌파구인 셈이다.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는 1967년 창립된 이후 수행과 정진을 이어오다 점차 학생들의 참여가 줄면서 2018년 활동을 중단했다. 5년간의 공백기를 거치고 2022년 진주 지역 사찰 스님들과 동문, 교수님들이 대학생 전법에 다시금 원력을 모았고 성공적인 재창립을 이뤄냈다. 이후 불교학생회는 활발한 불교 활동을 전개, 대학생 포교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다.

불교학생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게 된 데에는 지도법사 담산 스님의 역할이 컸다. 스님은 더욱 재미있는 불교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학생들이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한 학생회 활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불교에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월 1회 정기법회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고, 학생들의 안녕과 건강을 발원하는 기도와 축원도 매회 빠짐없이 진행했다. 담산 스님은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정기법회를 찾아와준 학생들이 대견하다"며 "짧은 시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방학 기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진 불교 활동은 불교학생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대부분 대학의 경우 방학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곳이 많다. 반면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은 대부분 진주와 근교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방학 때도 법회와 템플스테이, 삼사순례,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다. 지속적인 활동은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유대감을 심어줬고, 학교 외에서나 졸업 이후에도 불교와 인연을 이어가는 이점으로 작용했다.

스님은 학생회 활동 외에도 구성원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친밀감을 쌓았다. 학생들이 가진 고민에 솔직한 조언을 건넸고, 한 달에 한 번 영화관람으로 특별한 시간도 보냈다.

"색다른 프로그램이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더 신기한 건 주변의 반응입니다. 스님과 20~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조합이 신기한가 봅니다. 더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습 자체가 포교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님의 진심 어린 애정과 노력 덕분에 재창립 당시 15명이던 회원은 현재 50여 명까지 확대됐다. 2023년 12월 10일엔 정식 동아리로 승인이라는 결실도 맺었다.

"이타행 실천 교육, 대학생 전법 목표"



이상훈
대전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

폐부 위기 재도약 이끈 장본인
자기주도 이끌어 연속성 유지

대전대 불교학생회 '유심회'의 신년 목표는 해외성지 순례다.

불교 성지를 방문해 식견을 넓히고, 불교가 가진 사회적 역할을 일깨우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상훈 대전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해외성지 순례를 통해 진정한 이타행을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길 기원했다.

"자기 수행은 물론 보살행을 함께 하는 불교가 '현대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모두를 복되게 하려는 수행과 그 목적인 이타행을 우리 학생들이 대학 시절에 익히도록 하는 게 대학생 전법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고 함께 한다면 부처님 세상을 열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상훈 교수는 폐부 위기에 처한 '유심회'를 되살려 재도약을 이끈 장본인이다. 2018년 당시 유심회 회장이 갑작스레 군에 입대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동아리방 사용신청도 하지 않고 휴학한 탓에 다른 동아리가 이미 동아리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교수는 급히 학생처장과 동아리연합회장 등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고, 20명 회원 모집 등 학생처가 요구하는 정동아리에 필요한 요건들을 만들어갔다. 하마터면 준동아리로 강등돼 동아리방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낼 뻔했다. 이 교수의 발 빠른 대처로 고비를 넘겼고, 1981년 개교와 함께 창립돼 30여 년을 훌쩍 넘긴 유심회의 명맥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었다.

현재 유심회에는 50여 명의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매번 모든 인원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매주 월요법회와 연꽃 만들기나 차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꾸준한 신행생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짜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분위기를 잡아주는 데 초점을 뒀다.

"요즘 MZ세대는 본인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어떤 구성이 좋을지 본인들 스스로 고민하고 구성하면서 전법의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지도법사 스님과 지도교수가 강의하듯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 스스로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자기주도' 정서를 확산할 때 불교학생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로 친숙한 교감"



김현효
공주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

편하게 불교에 다가설 매개체
곁에서 올바른 신행활동 지도

"불교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껴져 불교학생회 가입을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명상이나 템플스테이처럼 친근한 불교문화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흔히 '불교'라고 하면 '할머니의 종교'라는 선입견이 많다. 교리는 배울수록 난해하고, 깨달음은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이 가물거린다. 그렇기에 김현효 공주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는 부담 없이 휴식을 즐기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실제적 체험활동에 주목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가져다준 편안함은 일상이 지칠 때마다 불교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주대 불교학생회도 마찬가지다. 템플스테이와 명상으로 재창립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작은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대학생 포교 원력에서 비롯됐다. 원경 스님은 공주대 불교학생회 설립을 서원했고, 2022년 마곡사 교무국장 대륜 스님을 필두로 회원 모집에 나섰다. 무작정 공주대를 찾아 염주를 나눠줬고, 템플스테이와 명상을 하자고 홍보했다.

점차 몇몇 학생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다며 관심을 가졌고 마곡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염주 꿰기, 요가, 타종 체험 등을 하면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들 가운데는 명상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륜 스님과 학교 잔디밭에서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문화 체험으로 방향성을 잡으니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좋았다. 김현효 교수가 지도교수로 합류하면서 차근차근 토대를 다져가니 어느새 입소문을 타 회원 수가 늘어났다. 김 교수는 학생들의 곁에서 신행 활동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했고, 동아리 활동과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불교적 예법을 일러주기도 했고, 학생들 스스로 불교학생회 내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각고의 노력 끝에 공주대 불교학생회는 2022년 9월 준동아리로 첫발을 내딛었고 2023년 10월 정동아리로 등록할 수 있었다. 1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현재 55명의 학생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공주대에 등록된 동아리는 총 83개. 그중 종교 동아리가 10개인데, 불교 동아리는 이곳이 유일하다. 김 교수는 대학생 포교가 위기라지만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부지런히 불교학생회를 알리고 활동을 지속하면 조금씩 변화도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